

글자번역 형식과 문화특정어 용례분석: *Sun-i Samch'on*을 중심으로

조 숙 회* 조 의 연**
(신흥대 동국대_서울)

1. 들어가기

권영민(2000: 8)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번역 문학작품은 “민족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과 “범세계적인 인류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¹⁾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출판번역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번역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숙회는 제1저자이며 **조의연은 교신저자임.

1) 김성곤(2006) 역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문학을 세계화시키기 위해 한국적인 색깔을 모두 없애고 보편화시켜버릴 수도 없으며, 반대로 한국적인 색깔만을 입힌다면 이는 보편성이 상실될 것이다. 한국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관련되는 주제이며, 한국적인 것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한국 문화를 지시 또는 내포하는 문학 작품 내의 표현을 번역가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특히 소수문학을 세계로 진입시키는 단계의 한영 문학번역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목표 텍스트에 보존하는 번역 방식은 ‘반복’ ‘글자번역’ ‘언어번역’ 등이 있는데(Aixelá 1996: 61),²⁾ 본 논문은 한국문학 작품의 문화적 요소를 보존하는 번역 방식 가운데 글자번역(transliteration)의 유형을 기술하고 번역 문학작품에서 이의 용례를 평가가 아닌 비평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³⁾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문학작품은 한영번역 작품 *Sun-i Samch'on* [순이삼촌]이다. 소설 『순이삼촌』(현기영 1978)은 제주 4.3사건의 비극과 이로 인한 ‘순이삼촌’이라는 한 개인의 황폐한 삶이 주제이다. 이 소설은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삼촌’ ‘당숙’ 등 영어권 문화에는 결여되어 있는 가족 관계 호칭들과 특히 제주도의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제주도 방언-곶밥, 코지, 감태-등의 문화 특정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작품이다.

이 논문은 번역소설 *Sun-i Samch'on*에 나타난 글자번역의 사례들을 라슈어(Charles La Shure 2010)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문학번역은 문학적 예술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라슈어(2010: 264)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는 한국문학 번역이 “출발어 단어와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오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직역이나 도착어 독자에게 아무 의미 없는 글자번역을 초래했음”을 보이고 있다. 라슈어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는 문학번역을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보는 데서 연유한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글자번역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Sun-i Samch'on*에 나타난 글자번역의 사례들을 분석하며 글자번

2) Aixelá에서 사용된 용어는 ‘철자법 차용’(orthographic adaptation)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음차 및 철자법 등을 포함하는 ‘글자번역’으로 그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할 것이다.

3) 이상원(2008)에 따르면, 번역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시각은 문학 번역을 오류 분석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따라서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평가와 달리 비평은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번역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번역물 그 자체를 인정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즉, 문학 번역 비평은 “문학작품 결과물에 문학작품의 지위를 부여하고 번역자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역이 과용된 경우를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장에서 우리는 글자번역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라슈어에 기반해서 논의할 것이다. 3장은 *Sun-i Samch'on*에 나타난 글자번역의 용례들을 글자번역의 유형에 기초하여 기술하고 분석할 것이다. 4장은 결론이다.

2. 글자번역의 유형과 문제점

번역에서 원천 텍스트의 문화 특정적 요소들⁴⁾ 도착 텍스트에 그대로 보존하는 번역 방식은 반복(repetition)이다. 그러나 철자법이 서로 다른 언어 사이들 사이의 번역에서 반복의 번역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 텍스트의 언어적 형식과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 거리감을 가장 잘 보존하는 번역 방식은 글자번역이다. 글자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글자 표기를 목표 텍스트의 글자 표기로 전환하는 번역방식을 말한다. 글자번역은 목표 텍스트 독자들이 사용하는 문자표기와는 다른 글자로 원천 텍스트가 이루어진 경우 쓰이며 특히 소수 문화의 지시 표현들을 번역할 때 사용되는 번역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글자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고유명사와 같은 지시어가 목표 텍스트 독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천 텍스트의 문자 또는 문자표기가 소리나는 대로 목표 텍스트의 철자법에 맞추어 전환되는 번역 방식이다.

먼저 글자번역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한 영번역의 예시를 통해 보기로 하자.⁵⁾ (예 1)은 고유명사의 경우이다.

(예 1) 고유명사

지명

ST: 아내가 태어나 당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마을은 진포였다.

TT: Your wife lived in Chinmoe from her birth until she married you.

4) 아이헬라(Aixelá 1996: 60)에 따르면, 문화특정어(culture-specific items)는 원천 텍스트에서 지시되는 혹은 언급되는 대상이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인지 환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텍스트로의 전이과정에서 번역문제를 초래하는 텍스트 항목들이다.

5) 이곳에 인용된 용례들은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ther*에서 발췌되었다.

인명

ST: 아 저는 남산동의 소망원에 있는 홍태희라고 합니다.

TT: Oh, I'm Hong Tae-hee, from Hope House in Namsan-dong.

위에서 지명 ‘진피’와 인명 ‘홍태희’는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유명사로 로마자 철자법에 따라 영어로 각각 ‘Chinmoe’와 ‘Hong Tae-hee’로 글자번역되고 있다. 이는 원천 텍스트의 지시표현을 문자적으로 옮긴 것으로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에게는 이국적인 문화 요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글자번역의 범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통명사에도 적용이 된다. 아래의 경우는 이를 보여준다.

(예 2) 보통명사

ST: 그때의 엄마는 물빛 한복을 입고 미장원에 가 업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TT: Mother looked nice in a pale-blue hanbok, with hair done at a salon, and she was even wearing red lipstick.

‘한복’은 로마자 표기법으로 전환되어 ‘hanbok’으로 글자번역되어 영어권 독자들은 ‘hanbok’이 옷의 종류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국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태릭체로 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글자번역되는 단어나 구의 형태를 명사의 종류로 구분하여 보았다. 필자들은 글자번역은 형태중심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글자번역이 이루어진 도착 텍스트의 의미단위 내에서 기술되어야 그 의미적 기능적 특성을 볼 수 있다고 본다. 글자번역의 의미기능 측면에서 볼 때, 글자번역의 단위는 독립된 성분의 글자번역 외에 확장된 글자번역의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권에서 널리 수용된 한영 번역 소설 *Please Look After Mother*를 조사한 결과, 우리는 독립된 문자번역 형식 외에 두 가지 확장된 형식이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글자번역 그 자체가 독립된 번역의 의미단위로 존재하는 유형을 우리는 이 논문에서 #글자번역#로 표기할 것이다.

#글자번역#6)

(예 3)

ST: 개봉동, 대림동, 옥수동, 낙산아파트 밑의 동승동, 수유동, 신길동, 정릉.

TT: Kaebong-dong, Taerim-dong, Oksu-dong, under the Naksan Apartments in Tongsung-dong, Suyu-dong, Singil-dong, Chongnung.

(예 4)

ST: 여기 엄마는 한복차림이잖아요.

TT: Mother's wearing a *hanbok* here.

위에서 동 단위의 지명과 ‘한복’은 모두 글자번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위에서 동 단위의 지명은 원천 텍스트에서는 고유 명사와 지역 단위의 두 성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이 두 성분의 차이를 글자번역에서는 하이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글자번역의 의미단위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보고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⁷⁾

글자번역의 확장된 유형으로 ‘글자번역’이 수식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글자번역+동의어’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경우가 이를 보여준다.

6) ‘#’는 성분단위를 표시하는 기호로 쓰였다. 이 성분단위는 목표 텍스트에 실현된 번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7) 지명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와 같이 지역 단위까지 글자번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를 보면, 지역 단위가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 지역 단위가 글자번역 대신 ‘동의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예는 박완서의 번역소설 *Who Ate Up All the Shinga*에서 발췌되었다.

ST: 내가 태어난 고장은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이십 리 가량 떨어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이라는 이십 호가 채 안 되는 벽촌인데

TT: I was born in a village with fewer than twenty households, some twenty ri southwest of Kaesong. Its full name was Pakchok Hamlet, Muksong Village, Chonggyo Township, Kaepung County.

따라서 지역명이 지역 단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 지역 단위를 포함한 명칭이 하나의 번역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글자번역+동의어#

(예 5)

ST: 전화가 한통 왔어. 역촌동 서부시장 앞에 있는 서부약국의 약사라고 하는데 아들이 들고 온 진단지를 봤대.

TT: 'I got a phore call,' she says, 'from a pharmacist at Sobu Pharmacy, in front of Sobu Market, in Yokchon-dong.'

원천 텍스트에서 '서부 시장' '서부 약국'은 형태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이다. 따라서 '서부 시장' '서부 약국'이 목표 텍스트에서 실현된 표현이 하나의 단위로 관찰되어야 한다. 그 결과 '서부'의 글자번역 'Sobu'는 'Sobu Market'이라는 단위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글자번역+동의어' 두 번째 형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글자번역'의 대상 성분은 수식어의 기능을 가지며 지명에 해당된다. 원천 텍스트의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영어권의 'market'과는 다르지만 의미 기능이 유사한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다. 소설에서 묘사되는 '약국'도 개인사업자가 하는 자영업으로서의 형태이지만 영어권의 'pharmacy'와 기능이 유사하여 동의어로 대체되고 있다.

끝으로 글자번역은 번역가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가된 의미 부분과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확장된 글자번역의 유형으로 '문자번역+텍스트내/외 삽입'의 형식이 존재한다.⁸⁾

#문자번역+텍스트내/외 삽입#

(예 6)

ST: 그래 당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이름은 대녀라고 알려주었네.

TT: Even though you didn't ask, I told you that my older sister's name was Tae-nyo, which means "big girl"⁹⁾

8) '주석'과 같은 텍스트의 삽입 또한 가능하며 본 논문은 이것을 포함하여 '텍스트내/외 삽입'으로 표기하였다.

9) 번역 단위를 이루는 구성요소들 사이의 선, 후행 순서는 둘 다 가능하다. 아래의 예는 글자번역이 텍스트내 삽입에 후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문자번역+텍스트내 삽입'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ST: 친구?

TT: The actor Shin Gu?

위에서 원천 텍스트의 ‘대녀’는 고유명사의 사람 이름이다. 인명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글자번역 만을 한 성분 단위로 번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이 텍스트 내 삽입과 함께 번역되어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예 7)
ST: 친구!
TT: ‘Shin Gu!’

위에서 지명 또는 인명은 글자번역 만으로 이루어져도 그것이 지명을 말하는지 또는 인명을 말하는지 맥락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 아래가 이를 보여준다.

(예 8)
ST: 의사가 다시 당신 이름을 묻네.
친구!
TT: The doctor asks your name again
‘Shin Gu!’

‘Shin-Gu!’ 이전 발화 ‘The doctor asks your name again’은 목표 텍스트 독자 들에게 이국적인 고유명사 표현 ‘Shin-Gu’가 인명임을 추론하게 한다. 한편, 아래의 목표 텍스트에서 ‘in a neighbourhood he’s lived in’의 구 정보는 목표 텍스트 독자로 하여금 ‘Kae bong-dong’이 지명임을 추론하게 한다.

(예 9)
ST: 그들의 공통점은 기묘하게도 예전에 그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엄마를 본 것 같다고 했다. 개봉동, 대림동, 옥수동, 낙산아파트 밑의 동송동, 수유동, 신길동, 정릉.
TT: Strangely, they all said they’d seen her in a neighbourhood he’s lived in. Kae bong-dong, Taerim-dong, Oksu-dong, under the Naksan Apartments in Tongsung-dong, Suyu-dong, Singil-dong, Chongnung.

따라서 비록 글자번역의 이국성이 표현의미로 존재하지만 위의 고유명사들이 인명 또는 지명임을 추론가능하게 한다.

‘글자번역+텍스트내 삽입’의 형식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다시 인용된 아래의 (10)의 발화만 보면 ‘대녀’가 인명임을 기술하고 있다.

(예 10)

ST: 그래 당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이름은 대녀라고 알려주었네.

TT: Even though you didn't ask, I told you that my older sister's name was Tae-nyo, which means "big girl."

위의 원천 텍스트에서 이름 ‘대녀’는 이름의 뜻풀이 없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 이름에 대한 의미가 텍스트 내 삽입으로 ‘which means “big girl”’로 첨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고유명사로 글자번역된 표현에 이에 대한 부가 정보가 주어져야만 하는 번역 동기가 존재한다. 이 텍스트가 발생한 이 전 부분은 이름에 나타난 의미 즉 ‘big’ ‘small’의 차이를 통해서 화자가 청자를 웃기려고 함을 알 수 있다.

-박소녀

그때 당신이 웃었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소. 당신을 한번 더 웃게 해주고 싶었네. 그래, 당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이름은 대녀라고 알려주었네. 당신은 한 번 더 웃었소.

즉 화자가 자신의 이름은 ‘소녀’이고 언니의 이름이 ‘대녀’인데 이에 대해 소설의 청자가 왜 웃는지, 소설의 화자는 왜 이러한 이름으로 웃기려 하는지는 고유명사 이름에 나타난 의미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름 자체가 왜 웃음을 유발시키는지 이를 목표 텍스트의 영어권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름에 얽힌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서는 영어권 독자들은 왜 ‘대녀’의 이름이 웃음을 유발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글자번역의 유형들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지명 및 인명 그리고 보통명사의 표현들이 글자번역으로 전달되는 이국성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인명으로 지명으로 그리고 웃으로 의미전달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글자번역이 갖는 문제점은 리슈어가 지적했듯이 출발어 텍스트의 단어나 표현을 중시하여 도착어 독자에게 아무 의미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

매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충주집’은 ‘충주 출신의 여성’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그런가 하면 ‘조 선달’은 행상꾼으로 ‘조’씨 성을 가진 남성을 부를 때 이름 대신 호칭 ‘선달’을 붙여 불렀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텍스트를 보기로 하자.

(예 11)

ST: 충주집은 입술을 쭈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 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TT1: Chungju-chip protested, pursing her lips. ... Cho Son-dal equivocated ...

TT2: ... the Chungju woman protested. ... Cho cut in, trying to patch up the situation.

위에서 TT1은 복합명사 ‘충주집’ 단위를 하나의 의미단위로 보고 문자번역 첫 번째 유형인 #문자번역# ‘Chungju-chip’으로 TT2는 두 번째 유형인 #문자번역+동이어# 형식을 취하여 ‘the Chungju woman’으로 번역하고 있다. TT1은 이 경우 맥락 상 ‘Chungju-chip’이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에게 여성의 이름으로 읽히게 된다. 이것은 원문에 나타난 의미를 왜곡시키는 오역을 유발하게 된다. 한편 이는 ‘조선달’의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TT1 #글자번역# ‘Cho Son-dal’은 ‘Son-dal’이 이름으로 영어권 독자들에게 해석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라슈어에 따르면, 황순원의 「학」의 영어 번역물에도 글자번역이 오류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단정학’은 중국, 일본에도 서식하는 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학이 아니기 영어권 독자들에게 ‘단정학’은 때문에 언어번역이 적절하다. 아래의 예시에서 TT2는 이를 보여준다. 즉, ‘단정학’은 ‘a crane with a red patch on its forehead’로 번역되고 있다. 이는 영어권 독자들이 어떤 학인지를 묘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번역이다.

(예 12)

ST: 어른들 몰래 들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TT1: they had set a trap here once hiding from the grown-ups and caught a crane. It was a Tanjong crane.

TT2: they had laid a snare here without letting the grown-ups know, and they had caught a crane. It was a crane with a red patch on its forehead.

그러나 TT1에는 ‘단정학’이 ‘Tanjong crane’, 즉 #글자번역+동의어#의 유형으로 번역되고 있다. ‘단정학’은 한국어 독자들에게는 의미있는 학의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글자번역+동의어’ ‘a Tanjong crane’은 목표어 독자들에게 내재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표현이다. La Shure는 이러한 번역 결과는 번역자가 원천 텍스트의 표현에 집착한 결과이며 문학번역이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인 번역 전략의 결과로 보고 있다.

3. *Sun-i Samch'on*의 글자번역 유형과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순이삼촌』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던 1949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액자 내부는 제주 4.3 사건이 존재하고 액자 외부에는 작중 화자인 ‘나’가 순이 삼촌의 죽음을 듣게 되는 1949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역사적 시대상을 나타내는 ‘남로당’ ‘대동청년당’ ‘빨갱이’ 등의 이념적 표현은 물론 제주 지명 ‘돈지코지’ ‘빌레동산’ ‘함덕리’ 등, 그리고 제주 방언 ‘곤밥’ ‘감태’ 그리고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처 조개’ ‘큰당숙’ ‘순이삼촌’ 등의 문화특정어가 쓰이고 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글자번역으로 나타난 문화특정어의 번역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수용성과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다.

3.1 기본형 #글자번역#

먼저 #글자번역#의 독립된 단위로 번역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 유형으로 번역된 표현을 범주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 소주
화폐단위: 원
제주방언: 뜰부기, 감태, 코지, 듬복늬, 불턱, 실거리(나무)
지명: 용강, 수원, 함덕,
인명: 길수, 종철, 김진배, 순이삼촌 등

술 ‘소주’의 경우와 화폐단위 ‘원’을 차례로 보기로 하자.

(예 13)
ST: 차멀미, 배멀미에 시달리며 소주에 젖고 팔 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생각에 젖어서 허위허위 찾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TT: I would have been worn out by motion sickness, soaked in *soju*, and
drenched in nostalgia.¹⁰⁾

번역가는 목표 텍스트 독자가 ‘소주’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
므로 ‘소주’가 술인지 맥락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한 실마리가 없음에도 이를 그
대로 글자번역으로 옮기고 있다.¹¹⁾ 한편, 화폐 단위 ‘원’은 문맥으로부터 화폐
단위임이 추론 가능하기 때문에 글자번역은 목표어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다.

(예 14)
ST: 그러고 나서 서울서 아내 몰래 좀 무리해서 마련한 봉투 삼만 원짜리

10) ‘팔 년 만에 찾아가는’ 등은 번역에서 생략되고 있으며 ‘고향생각에 젖어서’는 풀어
쓰기로 번역되고 있다.
11)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다음에 기초한다. 이 작품의 번역가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거리 단위인 ‘리’를 킬로미터로 자국화시켜 전환시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목표 텍스트 영어권 독자들이 ‘리’의 거리 단위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
을 전제로 한 번역결과이다. ‘소주’가 등장하는 바로 앞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원천
텍스트 ‘리’와 이에 대응하는 목표 텍스트 ‘kilometer’의 대체 번역을 볼 수 있다.

ST: 기차를 타도 완행을 타서 반도 끝까지 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을 지새우며
밤 항해를 해야 하는 수륙 천오백 리 길.
TT: Those 600 kilometers over land and water should have been covered by the
slowest train to the tip of the peninsular, followed by the overnight ferry.

석 장과 이만 원짜리 다섯 장을 내놓았다.

TT: Then I presented them with eight envelopes, three with 30,000 won and five with 20,000 won-beyond my means-that I had prepared without consulting my wife.

목표어 텍스트 독자가 한국의 화폐단위 ‘원’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문장 건너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정보로부터 글자번역 ‘won’이 화폐단위임을 추론가능하게 한다.

Presenting the envelopes, I didn't forget to apologize for my poor taste in offering cash and add that I had thought of buying gifts but couldn't figure out what specifically they would need.

다음은 제주도 방언과 관련된 글자번역의 경우를 논의하기로 하자.

(예 15)

ST: 갯빛 바다 안으로 날카롭게 먹혀들어간 시커먼 현무암의 갑, 저걸 사투리로 ‘코지’라고 했지. 바닷가 넓은 ‘돌빌레’에 높직이 쌓여 있는 저 고동색 해초 더미는 ‘툼북놀’이겠고, 겨울 바다에 포말처럼 둥둥 떠 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왁’이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붉게 타는 조짚불, 물에 오늘 해녀들의 불을 쬐는 저곳을 ‘불턱’이라고 했지.

TT: A pitch-black whinstone promontory was sinking its sharp teeth into the charcoal-colored sea. such a formation was called *koji* in our dialect. Those heaping piles of auburn seaweed on the broad *tolbillae* rocks on the shore must be *tumbungnul*, and what looked like bubbles of foam floating on the winter sea were the *taewak* of women divers. The red blazing from cracks in the dark whinstone was a bonfire of millet straw, and the fireplace where women divers would warm themselves when they emerged from the water was called *pultok*.

‘코지’와 ‘불턱’의 경우 묘사하는 대상체가 방언으로 불리우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글자번역 ‘koji’와 ‘pultok’으로 표현되어도 목표어 독자들이 이국성의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의미적으로 어떤 대상체를 지시하는지 맥락으로부터 그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듬북놀이’와 ‘태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부분은 소설에서 주인공 화자가 ‘잊어 먹고 있던 낱말들’을 기억해 내고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 마음이 가득차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어 독자들은 외국문학을 읽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이국성과 거리감을 원천 텍스트의 글자번역으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은 화자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억을 회상하는 맥락에서, 제주 방언 표현들이 글자번역으로 번역되는 것은 목표어 독자들에게도 수용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맥락에서의 생소한, 그리고 문학 주제의 흐름과 무관한 이국적 정보는 생략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텍스트에서 ‘감태’와 ‘뚝부기’는 글자번역으로 목표 텍스트에 보존되지 않고 생략으로 대체되어도 본 소설의 문화적 정체성을 목표 텍스트에 남기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16)

ST: 그날 아침나절에 길수 형과 나는 큰아버지를 도와 밭거름으로 쓰려고 밤사이 갯가에 올라온 뚝부기나 감태 따위 해초를 한군데 모아 놓는 일을 했다.

TT: Cousin Kil-su and I had worked side by side all morning that day, helping Uncle gather a pile of seaweed, *tumbugi* and *kamtæ* that had washed up overnight, to use as fertilizer.

Suggested TT: Cousin Kil-su and I had worked side by side all morning that day, helping Uncle gather a pile of seaweed that had washed up overnight, to use as fertilizer.

이 소설에서 친척 관계의 호칭은 동의어 또는 언어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이 ‘cousin’, ‘큰아버지’가 ‘Older Uncle’, 고모는 ‘aunt’, 종조모는 ‘Great Aunt’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글자번역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순이삼촌’이다.¹²⁾ ‘순이삼촌’은 표지의 소설 제목을 제외하고 텍스트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음 출현한다.

(예 17)

ST: 가족 장지 매입에 대한 의논을 끝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담을
즐기고 있는데 불현듯 순이삼촌 생각이 났다.

TT: We were wiling away the time chatting about various things after our
discussion about purchasing a burial site for the extended family,
when abruptly I thought of Sun-i Samch'on.

소설에서 주인공은 길수 형과 순이삼촌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촌수는 멀어도 이웃에 살아서 각별한 사이라 그렇게 부른 것이다. 한국문화에서 가족관계 호칭이 이름대신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순이삼촌’은 ‘Aunt Suni’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번역가의 의도를 고려하자면 번역가는 ‘순이삼촌’이 이름처럼 불리웠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삼촌’은 이 소설의 제목이기 때문에 원천 텍스트의 충실성에 입각하여 이 표현을 전체 글자번역의 방식을 택하는 번역전략을 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라슈어가 지적했듯이, 원천 텍스트의 표현을 중시하여 원천 텍스트의 표현 그대로 글자번역되는 경우 목표 텍스트 독자들에게는 자칫 ‘Samch'on’이 이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에 인용된 텍스트의 ‘I thought of Sun-i Samch'on’에 이어 ‘Oddly, this aunt of mine had been missing all evening’이라는 정보가 제공이 되어 ‘Sun-i Samch'on’은 주인공 화자의 ‘aunt’라는 정보가 주어지지만 ‘Sun-i Samch'on’이라는 고유명사 표현에서 ‘aunt’의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목표어 독자들이 가늠할 실마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Sun-i Samch'on’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인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어 원천 텍스트에는 ‘순이’가 왜 ‘순이삼촌’으로 불리었는지 그 정보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다.

- 12) 순이삼촌은 제주 4.3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인물이지만 그 때의 충격으로 심한 신경쇠약과 환청 등의 정신 질환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밭에서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주음을 맞이한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순이삼촌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제주 4.3사건의 의미를 깨닫는다.

촌수는 멀어도 서너 집 건너 이웃에 살아서 큰집과는 서로 기제사에 왕래한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길수 형과 나는 어려서부터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랐다(고향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없이 흔히 삼촌이라 불러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다).

위의 밑줄친 부분에 해당되는 목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Quite naturally, cousin Kil-su and I developed a deep affection for her from early childhood. We would call her Samch'on since it was customary in our village to designate distant but friendly relatives by this unisex title.

‘순이삼촌’이 왜 ‘삼촌’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목표 텍스트에는 가족관계 호칭에서 ‘삼촌’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밑줄 친 부분이 ‘We would call her Samch'on-aunt/uncle-’로 번역하여 글자번역된 표현의 의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다. 즉, 분명 ‘순이’가 주인공에게 ‘순이삼촌’으로 불리었다고 하더라도 ‘삼촌’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설령 ‘순이삼촌’을 ‘Sun-i Samch'on’으로 글자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이 목표어 독자들에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3.2 확장형 #글자번역+동의어#와 #글자번역+텍스트내/외 삽입#

글자번역의 확장된 유형 #글자번역+동의어#의 번역 전략이 적용된 경우의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명칭: 제주도, 전라도, 제주시, 애월면 함덕리, 선흘리, 논흘리, 한라산, 달려도섬, 함덕지서, 돈지코지, 빌레동산, 함덕초등학교,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가족관계 호칭: 큰당숙, 작은 당숙, 등

음식: 곤밥, 지주떡, 등

글자번역의 유형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이 경우는 ‘글자번역’이 수식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주도’는 ‘Cheju Province’, ‘제주시’는 ‘Cheju City’, ‘선흘리’는 ‘Sonshul Village’, ‘돈지코지’는 ‘Cape Tonji’로 ‘큰당숙’은 ‘Older Tangsuk’, 그리고 ‘곤밥’은 ‘kon rice’으로 번역되고 있다. 지명은 단위를 나타내는 ‘province, township, village’ 등과 결합하여 목표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Cape Tonji’도 마찬가지이다. ‘kon rice’의 경우도 적어도 독자들은 이것이 쌀(밥)의 일종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큰당숙’의 번역 ‘Older Tangsuk’이 목표어 독자들에게 해석될 때 ‘Tangsuk’은 이름으로 해석되거나 의미없는 표현으로 남겨진다. ‘Older Tangsuk’이 쓰인 용례를 보기로 하자.

(예 18)

ST: 그날은 하루에 두 집 제사라 큰당숙 댁에서 종조모 제사를 초저녁에 먼저 치른 다음 모두 큰집에 모였다.

TT: Since there were two memorial services in two households that day, the extended family performed an early evening service for Great Aunt at Older Tangsuk's place and then congregated at Older Uncle's place.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형제’에 대한 호칭이다. 영어권의 독자들에게 ‘Older Tangsuk’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아무 의미 없는 글자번역이다.¹³⁾

‘곤밥’은 일회적으로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곤밥’에 대한 설명이 원천 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목표 텍스트에서 번역되고 있다.¹⁴⁾ 따라서 ‘곤밥’은 ‘kon rice’의 #글자번역+동의어#의 유형으로 번역하는

13) 이는 언어번역의 전략을 사용하여 ‘father's older cousin’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4)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처럼 제삿날에나 먹어 보던 ‘곤밥’. 왜 ‘곤밥’이라고 했을까? ‘곤밥’은 ‘고운밥’에

것은 의미전달 뿐만 아니라 목표어 독자들에게 이국성을 전달하는 데 적절하다. 그러나 ‘기주떡’의 경우 주인공이 제주도 방언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제주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담화에서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단지 순이삼촌이 제삿날 가지고 오던 떡이었다. 아래의 원천 텍스트는 이를 보여준다.

아까부터 그분(순이삼촌)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다. 어릴 때 보면 큰집 제삿날마다 부주로 기주떡 구덕을 들고 오던 분이였다¹⁵⁾. 촌수는 멀어도 서너 집 건너 이웃에 살아서 큰집과는 서로 기제사에 왕래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다.

이 경우 ‘기주떡’의 원천 표현을 중시하여 ‘*kiju rice cake*’이라고 글자번역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번역과정에서 ‘기주’를 생략하는 것은 목표어 독자들에게 정보처리 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글자번역의 또 다른 확장 유형인 #글자번역+텍스트내/외 삽입#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 경우 번역소설 *Sun-i Samch'on*에서 관찰된 용례는 원천 텍스트의 ‘고운’에 해당된다. 아래의 예시를 보기로 하자.

(예 19)

ST: 왜 ‘곤밥’이라고 했을까? ‘곤밥’은 ‘고운밥’에서 왔을 것이고 쌀밥은 빛깔이 고우니까.

TT: Where did the name *kon* rice come from? It must have originated from *koun*, a word that means ‘beautiful,’ since cooked white *kon* rice has a beautiful hue.

주인공이 ‘고운밥’의 ‘고운’의 말에서 ‘곤밥’의 명칭이 유래했음을 기술하고 있

서 왔을 것이고 쌀밥은 빛깔이 고우니까. 어린 시절에도 파제 후 ‘곤밥’을 몇 숟갈 얻어먹어 보려고 길수 형과 나는 어른들 등 위에서 이렇게 모로 누워 새우잡을 자곤 했다.

15) ‘기주떡’이 사용된 문장의 목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I had childhood memories of her coming to every memorial service at Older Uncle’s place with a pot of *kiju* rice cake as her contribution.

는 대목이다. 분명 목표어 독자들에게 ‘고운’의 뜻이 풀어서 제공되어야 뜻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가 ‘고운’을 ‘*koun*, a word that means ‘beautiful’의 ‘글자번역+텍스트내 삽입’ 형식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전략의 결과이다.

4. 맺음말

글자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문화특정적 요소를 목표 텍스트에 보존하는 번역전략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번역형태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표현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글자번역은 피할 수 없는 번역전략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세계적으로 읽힌 한영 번역소설 *Please Look After Mother*를 중심으로 글자번역의 기본형으로는 #글자번역#을 제시하고 확장형으로는 #글자번역+동의어#와 #글자번역+텍스트내 삽입#의 번역단위를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문화특정어가 많이 쓰인 한영 번역소설 *Sun-i Samch'on*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확장형의 글자번역과 기본형의 글자번역 용례들이 *Sun-i Samch'on*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문화특정어를 중심으로 분석,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라슈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글자번역의 몇몇의 경우는 원천 텍스트의 표현에 집착한 결과 목표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번역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경우가 ‘*Sun-i Samch'on*’으로 목표어 독자들에게는 ‘*Samch'on*’이 이름의 일부로 이해되거나 전혀 의미없는 글자번역일 뿐이다. 이것은 확장된 글자번역의 ‘*Old Tangsuk*’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글자번역의 기본형을 쓰는 경우, 이는 이국화를 살리는 대표적인 번역전략에 속하지만 독자들이 맥락을 통해 지명이거나 인명인 경우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 텍스트의 표현에 집착하여 해석의 오류나 오역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피해야 할 것이다.

문화특정어의 번역에서 글자번역은 그 사용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동기는 분명히 이국성의 보존전략이다. 그러나 이국성의 보존전략이 가장 강한

경우에 쓰이는 글자번역의 유형은 위에서 논의한 기본형이다. 확장형들은 이국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목표 텍스트의 독자들의 자국성을 고려하여 대체전략을 혼합한 경우이다. #글자번역+동지어# 번역방식은 ‘글자번역’이 고유명사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Cheju Province’, ‘제주시’ ‘Cheju City’, ‘선흘리’ ‘Sonshul Village’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명사의 경우도 있는데 ‘곤밥’ ‘kon rice’가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kon rice’는 ‘rice’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것이다. 또다른 확장형은 #글자번역+텍스트내/외 삽입#으로 이는 이국적 정보와 이 정보를 자국적 전략으로 풀어서 제공하는 번역전략으로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끝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문화특정적 요소가 반드시 번역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지적하였다. 이 경우, 생략이라는 자국적 전략이 발생한다. 즉 이국적 요소의 정보가 목표 텍스트 독자들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번역가는 이 문화특정적 요소를 목표 텍스트에서 생략할 수 있다. ‘kon rice’의 경우와 달리 ‘kiju rice cake’에서 ‘kiju’는 굳이 이국성을 목표어 독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맥락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문화특정어의 요소를 번역할 때, 글자 표현에 집착하는 경우는 피해야 하며, 이국성의 전달 등 그 번역동기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이라는 번역전략을 택하는 것이 목표어 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0)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4: 7-29.
- 김성곤 (2006) 『글로벌시대의 문학: 세계 속의 한국문학』, 서울: 민음사.
- 김지영 역 (2011) *Please Look After Mother*, London: Weidenfeld & Nicolson.
- 신경숙 (2008)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비.
-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166.
- 조의연 엮음 (2012)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Aixelá, Javier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Roman Alvarez and M. Carmen-Africa Vidal (ed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La Shure, Charles (2010)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cultural vehicle or literary art?',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1): 263-301.

Newmark, Peter (1980)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분석 텍스트>

현기영 (1978) 『순이삼촌』, 서울: 창비.

이정희 역 (2002) *Suni Samch'on*, Seoul: Asia Publishers.

[Abstract]

Transliteration and its Basic and Extended Forms:

**An analysis of Culture-specific items in the
Korean-to-English Novel *Suni Samch'on***

Cho, Sookhee Cho, Euiyon
(Sinheung College Dongguk University_Seoul)

The paper has two objectives: one is to identify three patterns of transliteration which are used to translate Korean culture-specific items into English. Examples are drawn from the well received translated novel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ther*). The oth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ose transliterations found in the Korean-to-English novel 『순이삼촌』(*Suni Samch'on*). In this paper, three types of transliteration are described: the basic type #transliteration# and its extended two patterns such as #transliteration+synonymy# and #transliteration+intra/extratextual gloss#. La Shure (2010) has shown that transliteration has been sometimes used as a vehicle for the transmission of culture when translating famous Korean short novels into English, producing meaningless transliteration for the English target readers. When we have analyzed those cases of transliteration found in *Suni Samch'on*, it turns out that most cases of transliteration are well understood for English target readers. When 'koun' is given the basic form of transliteration, since the English target readers have no idea of what it means, intratextual gloss is provided, by making use of the extended transliteration pattern #transliteration+intra/extratextual gloss#. However, some transliterations such as 'Suni Samchon' and 'Older Tangsuk' are criticized as cases of overusing the transliteration since they are misread or unreadable for the English target readers.

▶ Key Words: transliteration, culture-specific items, translation strategy, Korean literature, foreignization

조숙희

신홍대학교 영어통번역과

shcho@shc.ac.kr

관심분야: 영어교육, 번역학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choey@dongguk.edu

관심 분야: 화용론,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